

#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윤은경 · 신성희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동서간호학 연구소

## Comparis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Young Adolescents' Aggression according to Family Structure

Yun, Eun Kyoung · Shin, Sung Hee

College of Nursing Science, East-West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cross-sectional study was done to compare factors influencing young adolescents' aggression according to family structure. **Methods:** Participants were 680 young adolescents aged 11 to 15 years (113 in single father families, 136 in single mother families, 49 in grandparent families, and 382 in both-parent families). All measures were self-administer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program and factors affecting young adolescents' aggression were analyzed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Levels of young adolescents' aggression and all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four family structure groups. Factors influencing young adolescents' aggression were also different according to these 4 groups. For single father families, depression-anxiety and family hardines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level of young adolescents' aggression (adjusted R square=.37,  $p < .001$ ). For single mother families, depression-anxiety, gender, and friends' support significantly predicted the level of young adolescents' aggression (adjusted R square=.58,  $p < .001$ ). For grandparent families, depression-anxiety and family support significantly predicted the level of young adolescents' aggression (adjusted R square=.58,  $p < .001$ ). For both-parent families, depression-anxiety, family hardiness, and friends' support significantly predicted the level of young adolescents' aggression (adjusted R square=.48,  $p < .001$ ). **Conclusion:** Nurses working with young adolescents should consider family structure-specific factors influencing aggression in this population.

**Key words:** Family, Adolescent, Aggression, Depression, Anxiety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동물학대, 폭력, 성매매, 강도 등과 같은 일탈행위와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그 잔인함과 대범함이 날로 심해지고 초기 범죄의 연령대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Statistics Korea [SK] (2011) 자료에 의하면 2004년 대비 2007년 청소년 범죄율은 33%

증가하였는데, 고등학생의 범죄율은 감소한 반면, 초기 청소년의 범죄율과 강력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탈행위와 범죄는 청소년에게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Seong, & Choe, 2010; Lee, 2009). 공격성은 청소년 비행 가운데 집단 괴롭힘, 가해행동의 주요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Lee & Kim, 2001; Seo & Kim, 2010), 청소년 성매매 경험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 Kim). 특히,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쉽게 감소하지 않고, 때로는 더욱 격렬한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성인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Kim & Kim,

주요어: 가족, 청소년, 공격성, 우울, 불안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hin, Sung Hee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917 Fax: +82-2-961-9398 E-mail: sunghshin@khu.ac.kr

투고일: 2012년 12월 31일 심사외뢰일: 2013년 1월 16일 게재확정일: 2013년 2월 23일

2007). 많은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해 가족구조의 해체와 가족 역할의 변화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Park, Chung, & Ku, 2006).

가족구조는 세대주 또는 부모의 구성에 따라 양부모가족, 부자가족, 모자가족, 조손가족으로 구분된다(Chin, 2008). 2005년과 2010년 간 우리나라의 가족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양부모가족은 6,702,000에서 6,416,000으로 4.3% 감소한 반면, 부자가족은 287,000에서 347,000으로 21.1%, 모자가족은 1,083,000에서 1,247,000으로 15.1% 증가하였고, 조손가족은 58,000에서 51,000으로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K, 2011). 즉, 2011년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은 1,370,000가구로 2004년에 비해 21.9% 늘어난 전체 가정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조손가족을 포함하면 조금 더 증가한다. 이러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혼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2011년 한 해 동안 이혼한 부부는 114,300 쌍이며 이 중 52.6%가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나 초기 청소년을 포함한 총 101,600 여명의 미성년자가 새로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다.

한부모 또는 부모 없이 조부모와 생활하는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적응을 고려할 때, 초기 청소년기 자녀는 유아기나 학령기 자녀에 비해 보다 위기적 상황에 놓인다. 초기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가족과 부모로부터 여전히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청소년의 발달과업인 건강한 정체성 확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성역할 동일시 대상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Min, Lee, & Kim, 2008). 또한, 가족해체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인 방임, 폭력, 무관심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 불안, 죄책감, 상실감, 외로움, 분노, 공격성 등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나타난다(Cho & Lim, 2009; Ju & Cho, 2004; Lee, 2007; Min et al.).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등 왜곡된 가족관계의 양상을 반영한다(Lee). 부모의 비일관적인 훈육태도는 자녀의 공격적이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통제적인 의사소통을 하여 자녀들에게 강압적인 행동이나 공격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Cho & Lim). 그러므로 가족해체과정과 이후에 가족구조 내에서 자녀가 겪게 되는 정서적 경험은 사춘기와 맞물린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Jablonski와 Lindberg (2007), Park 등(2006)은 공격성이 가족구조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Lee (2007)도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족의 청소년보다 공격성 수준이 높

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Oh (2001), Cho와 Lim (2009)은 청소년의 공격성이 가족구조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Lee (2000)는 오히려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공격성이 한부모가족 청소년보다 높다고 보고하여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못하였다. 이는 가족구조와 더불어 가족 구성원의 역할 또는 가족기능이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가족구조를 부자가족, 모자가족, 조손가족으로 나누어 분석하기 보다는 한부모가족으로 합쳐서 양부모가족과 비교하는 연구(Cho & Lim, 2009; Lee, 2000; Lee, 2009)로 각 가족구조의 특성과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는 가족구조를 세분화한 연구일지라도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인 측면을 단순 비교(Jeong, 2006; Oh, 2001; Shin, 2005)하였을 뿐, 가족구조와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을 동시에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이혼을 증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공격성에 대한 구체적인 간호 중재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은 가족과 집단, 사회 환경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안에 있는 존재이고, 특히, 초기 청소년은 아동기에 비해 점차로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교사나 친구의 영향이 커지는 시기이므로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 학교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생태계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부자가족, 모자가족, 조손가족과 같은 가족구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예민한 시기에 다양한 심리적인 변인에 영향을 미쳐 공격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조에 따른 개인차원, 가족차원, 사회차원을 비교하고, 특히,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의 기능이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통합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 결과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은 개인의 우울·불안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Lee, 2009; Oh, 2001),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의 강인성이 높을수록, 가족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o & Lim, 2009; Kim et al., 2010; Lee). 또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음이 확인되었다(Ha & Edwards, 2004; Kim et al.; Lee). 이외에도 영화, TV, 게임 등 매체에 등장하는 폭력적인 내용이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인식되고, 가정폭력 경험, 빈곤 등이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족기능에 초점을 두고 생태계학적 접근을 위하여 개인차원의 우울·불안의 심리적 측면, 가족차원의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지지, 사회차원의 교사지지와 친구지지의 독립변인들이 가족 구조에 따라 종속변인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초기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 중재안 마련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그 영향요인을 비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 요인들의 정도를 비교한다.

둘째,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그 영향요인을 비교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비교조사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8개의 초등학교와 8개의 중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800여 명 중 본 연구의 목적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 총 680명(부가족, 113명, 모자가족 136명, 조손가족 49명, 양부모가족 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손가족을 제외한 각 집단의 대상자 수는 검정력 프로그램인 G\*Power 3.1.3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필요한 표본 수를 효과크기(medium).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예측요인 7로 계산했을 때 제시한 수(108)에 부합되는 수이다.

###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공격성 19문항, 우울·불안 16문항, 가족강인성 16문항, 부모-자녀 의사소통 10문항, 가족관계 만족도 2문항, 사회적 지지(친구, 가족, 교사) 24문항, 일반적 특성(성별, 학교, 나이, 가족 경제상태, 동거가족) 5문항의 총 92문항으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정도를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 1) 공격성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파괴나 상해에 목적을 두는 의도적인 행동, 정서반응 및 그러한 성향 모두를 의미한다(Kim & Kim, 2007).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 (1991)가 개발하고 Oh, Lee, Hong과 Ha (1997)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형 아동·청소년용 자기보고식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 List [K-CBCL]) 중 공격성의 하위척도 19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말다툼을 자주 한다', '나는 내 물건을 부순다', '나는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등에 대해 원도구는 3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 표기의 일관화를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Oh 등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3,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 2) 우울·불안

Achenbach (1991)가 개발하고 Oh 등(1997)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형 아동·청소년용 자기보고식 행동평가척도(K-CBCL) 중 우울·불안 16문항을 이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Oh 등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3,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 3) 가족강인성

가족강인성이란 가족이 함께 의식을 갖고 협조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협동성,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는 적극성의 도전성, 생활상의 사건과 고난에 대한 통제감을 의미한다(McCubbin, McCubbin, & Thompson, 1996). 본 연구에서는 McCubbin 등이 개발하고 Lee (1995)가 번안한 가족강인성 척도(Family Hardiness Index [FHI])를 Shin (2010)이 초기 청소년에게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강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McCubbin 등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2, Shin의 연구에서는 .77,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 4)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호간의 공통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Barnes & Olson, 1982). 본 연구에서는 Barends와 Olson이 개발하고 Min (1992)이 번안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 [PACI]) 중 자녀용 질문지를

Cha (2001)가 초기 청소년에게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로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 6문항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4문항의 2개 하위요인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개방적이고 기능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Min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79, Cha의 연구에서는 .79, 본 연구에서는 .77이었다.

#### 5)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는 Choi, Meininger와 Roberts (2006)가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에서 개발한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Children's Satisfaction with Parent-Child Relationship) 중 자녀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과의 친밀한 정도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를 묻는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 6) 사회적 지지

Dubow와 Ulman (1989)이 3-7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해 개발한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과 Scale of Available Behavior (SAB)를 근거로 Yoo와 Han (1996)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친구지지 8문항, 가족지지 8문항, 교사지지 8문항의 3개 하위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점 1-4점으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느끼는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 지지 정도가 각각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oo와 Han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1, 본 연구에서는 .93(친구지지 .90, 가족지지 .91, 교사지지 .88)이었다.

### 4. 자료 수집 기간과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 7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8개의 초등학교와 8개의 중학교에 전화를 걸어 각 학교 교감선생님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 후 연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약속된 날짜에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 각 주임선생님에게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설명하고 각 학년 방

과 후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였다. 보호자의 동의서가 포함된 가정 통신문과 자가보고식 질문지 총 800부를 봉투에 넣어 가정에서 완성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도중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설명하였다. 가정 통신문을 통해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가정에서 완성한 설문지를 부모의 동의서와 함께 수거하였다. 총 732부(91.5%)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응답에 불성실한 자료 13부와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자료 수집 종료 시점 시 보호자의 연구 참여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39부를 제외한 총 680부(85.0%)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부자가족, 모자가족, 조손가족, 또는 양부모가족의 가족구조는 '함께 사는 가족'을 모두 선택하는 설문내용을 기초로 구분하였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여부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확인하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네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네 집단 간의 동질성은 Chi-square test와 ANOVA로 검정하였다.

둘째, 네 집단 간의 공격성과 관련요인인 우울·불안,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에 대한 평균차이 검정은 나이, 가족경제상태를 공변량으로 ANC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셋째, 네 집단의 공격성과 관련요인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넷째,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한 후 회귀 가정으로 검정하였다.

##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가족구조에 따른 네 집단 간 동질성 검정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구조에 따른 네 집단 간에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네 집단 모두 여자가 약간씩 많았으나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연령은 부자가족 13.7±1.3세, 모자가족 13.7±1.2세, 조손가족 13.3±1.4세, 양부모가족 13.8±1.0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F=3.10, p=.026$ )가 있었으며, 사후 검정 결과 조손가족 청소년의 평균연령이 양부모가족 청소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경제상태는 양부모가족에 비해 편부, 편모, 조손가족의 청소년이 '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chi^2=71.67, p<.001$ ). 즉, 네 집단의 동질성 검증 결과 나이, 가족경제상태에서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요인들의 정도와 차이**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요인들의 정도와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네 집단 간에 나이, 가족경제상태가 동질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공변량으로 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공격성의 평균점수는 문항평점 4점 만점에 부자가족 2.05 ± 0.48, 모자가족 1.95 ± 0.50, 조손가족 2.08 ± 0.47, 양부모가족 1.93 ± 0.44점으로 통계적으로 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F=2.28, p=.021$ )가 있었으며, 사후 검정한 결과 부자가족과 조손가족 청소년의 공격

성이 모자가족과 양부모가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관련 요인에서는 우울·불안( $F=2.52, p=.010$ ), 가족강인성( $F=11.58, p<.001$ ), 가족 의사소통( $F=7.76, p<.001$ ), 가족관계 만족도( $F=13.62, p<.001$ ), 가족지지( $F=6.83, p<.001$ ), 친구지지( $F=9.59, p<.001$ ), 교사지지( $F=10.93, p<.001$ )에서 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검정한 결과, 우울·불안은 부자가족( $2.02 \pm 0.51$ )과 모자가족( $2.01 \pm 0.60$ )이 양부모가족( $1.85 \pm 0.51$ )보다 높았으며, 가족강인성은 부자가족( $2.85 \pm 0.47$ )과 조손가족( $2.86 \pm 0.53$ )이 양부모가족( $3.10 \pm 0.43$ )보다 낮았다. 가족의사소통은 부자가족( $2.72 \pm 0.57$ )이 양부모가족( $3.04 \pm 0.56$ )보다 낮았으며,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자가족( $2.71 \pm 0.94$ )과 모자가족( $2.90 \pm 0.95$ ), 조손가족( $2.57 \pm 0.92$ ) 세 집단이 양부모가족( $3.31 \pm 0.77$ )보다 낮았다. 가족지지는 부자가족( $2.98 \pm 0.69$ )이 양부모가족( $3.30 \pm 0.61$ )보다 낮았으며 친구지지는 네 집단 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교사지지는 부자가족( $2.91 \pm 0.59$ )과 모자가족( $2.90 \pm 0.63$ ), 조손가족( $3.00 \pm 0.56$ ) 세 집단이 양부모가족( $2.73 \pm 0.62$ )보다 낮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among the Four Groups

(N=680)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Single father <sup>a</sup> | Single mother <sup>b</sup> | Grandparent (s) <sup>c</sup> | Both parents <sup>d</sup> | $\chi^2$ or F (p) | Scheffé test |
|------------------------|-------------------|----------------------------|----------------------------|------------------------------|---------------------------|-------------------|--------------|
|                        |                   | (n=113)                    | (n=136)                    | (n=49)                       | (n=382)                   |                   |              |
|                        |                   | n (%) or M ± SD            | n (%) or M ± SD            | n (%) or M ± SD              | n (%) or M ± SD           |                   |              |
| Gender                 | Male              | 53 (46.9)                  | 60 (44.1)                  | 23 (46.9)                    | 307 (45.1)                | 0.29 (.795)       |              |
|                        | Female            | 60 (53.1)                  | 76 (55.9)                  | 26 (53.1)                    | 373 (54.9)                |                   |              |
| School                 | Elementary school | 43 (38.1)                  | 50 (36.8)                  | 27 (55.1)                    | 111 (29.1)                | 15.18 (.002)      |              |
|                        | Middle school     | 70 (61.9)                  | 86 (68.2)                  | 22 (44.9)                    | 271 (70.9)                |                   |              |
| Age (year)             |                   | 13.7 ± 1.3                 | 13.7 ± 1.2                 | 13.3 ± 1.4                   | 13.8 ± 1.0                | 3.10 (.026)       | c < d        |
| Family economic status | High              | 16 (14.5)                  | 11 (8.1)                   | 6 (12.5)                     | 116 (30.4)                | 71.67 (<.001)     |              |
|                        | Middle            | 73 (66.4)                  | 102 (75.6)                 | 33 (68.8)                    | 255 (66.9)                |                   |              |
|                        | Low               | 21 (19.1)                  | 22 (16.3)                  | 9 (18.8)                     | 10 (2.6)                  |                   |              |

**Table 2.** Differences in Level of Variables among the Four Groups

(N=680)

| Variables*                       | Single father <sup>a</sup> | Single mother <sup>b</sup> | Grandparent (s) <sup>c</sup> | Both parents <sup>d</sup> | F (p)         | Scheffé test |
|----------------------------------|----------------------------|----------------------------|------------------------------|---------------------------|---------------|--------------|
|                                  | (n=113)                    | (n=136)                    | (n=49)                       | (n=382)                   |               |              |
|                                  | M ± SD                     | M ± SD                     | M ± SD                       | M ± SD                    |               |              |
| Aggression                       | 2.05 ± 0.48                | 1.95 ± 0.50                | 2.08 ± 0.47                  | 1.93 ± 0.44               | 2.28 (.021)   | a,c > b,d    |
| Depression-anxiety               | 2.02 ± 0.51                | 2.01 ± 0.60                | 1.98 ± 0.50                  | 1.85 ± 0.50               | 2.52 (.010)   | a,b > d      |
| Family hardiness                 | 2.85 ± 0.47                | 3.00 ± 0.46                | 2.86 ± 0.53                  | 3.10 ± 0.43               | 11.58 (<.001) | a,c < d      |
| Family communication             | 2.72 ± 0.57                | 2.92 ± 0.58                | 2.80 ± 0.56                  | 3.04 ± 0.56               | 7.76 (<.001)  | a < d        |
|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 2.71 ± 0.94                | 2.90 ± 0.95                | 2.57 ± 0.92                  | 3.31 ± 0.77               | 13.62 (<.001) | a,b,c < d    |
| Family support                   | 2.98 ± 0.69                | 3.20 ± 0.66                | 3.04 ± 0.74                  | 3.30 ± 0.61               | 6.83 (<.001)  | a < d        |
| Friend's support                 | 2.81 ± 0.71                | 2.80 ± 0.65                | 2.89 ± 0.68                  | 2.90 ± 0.61               | 9.59 (<.001)  |              |
| Teacher's support                | 2.91 ± 0.59                | 2.90 ± 0.63                | 3.00 ± 0.56                  | 2.73 ± 0.62               | 10.93 (<.001) | a,b,c > d    |

\*Age and family economic status were controlled for because there were group differences (ANCOVA).

### 3.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영향요인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공격성과 관련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나이, 가족경제상태를 통제변수로 통제된 후 분석하였다(Table 3). 부자가족 청소년의 공격성은 우울·불안( $r = .56, p < .001$ )과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족강인성( $r = -.29, p = .002$ ), 가족의사소통( $r = -.28, p = .003$ ), 가족지지( $r = -.23, p = .015$ ), 친구지지( $r = -.22, p = .020$ ), 교사지지( $r = -.22, p = .020$ )와는 약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모자가족 청소년의 공격성은 우울·불안( $r = .74, p < .001$ )과는 강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족강인성( $r = -.35, p < .001$ ), 가족의사소통( $r = -.29, p = .001$ ), 가족지지( $r = -.31, p < .001$ ), 친구지지( $r = -.18, p = .032$ ), 교사지지( $r = -.22, p = .010$ )와는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조손가족 청소년의 공격성은 우울·불안( $r = .71, p < .001$ )과만 강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공격성은 우울·불안( $r = .68, p < .001$ )과는 강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가족지지( $r = -.23, p < .001$ ), 가족의사소통( $r = -.25,$

$p < .001$ ), 가족관계만족도( $r = -.21, p < .001$ ), 가족지지( $r = -.24, p < .001$ ), 친구지지( $r = -.12, p = .022$ ), 교사지지( $r = -.15, p = .003$ )와는 약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네 집단의 공격성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나이를 통제변수로 하고 관련요인인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성별을 독립변수로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두 회귀식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불안,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 지지간의 상관계수도 .12-.74로 자기상관이 없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0.83-1.00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도 1.00-1.180으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았다. 특히,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으며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도 1.0을 초과하는 개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Table 3.** Partial Cor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Independent Variables in Four Groups (N=680)

| Variables <sup>†</sup>           | Single father (n=113) | Single mother (n=136) | Grandparent (s) (n=49) | Both parents (n=382) |
|----------------------------------|-----------------------|-----------------------|------------------------|----------------------|
|                                  | Aggression            | Aggression            | Aggression             | Aggression           |
|                                  | r (p)                 | r (p)                 | r (p)                  | r (p)                |
| Depression - anxiety             | .56 (<.001)***        | .74 (<.001)***        | .71 (<.001)***         | .68 (<.001)***       |
| Family hardiness                 | -.29 (.002)**         | -.35 (<.001)***       | -.16 (.261)            | -.23 (<.001)***      |
| Family communication             | -.28 (.003)**         | -.29 (.001)**         | -.27 (.063)            | -.25 (<.001)***      |
|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 -.16 (.095)           | -.08 (.356)           | -.18 (.212)            | -.21 (<.001)***      |
| Family support                   | -.23 (.015)*          | -.31 (<.001)***       | -.01 (.964)            | -.24 (<.001)***      |
| Friend's support                 | -.22 (.020)*          | -.18 (.032)*          | .10 (.505)             | -.12 (.022)*         |
| Teacher's support                | -.22 (.020)*          | -.22 (.010)*          | -.12 (.432)            | -.15 (.003)**        |

\* $p < .05$ ; \*\* $p < .01$ ; \*\*\* $p < .001$ ; <sup>†</sup>Age and family economic status were controlled as covariates.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Variables Predicting Adolescents' Aggression according to Family Type (N=680)

| Family types           | Variables*         | B     | SE  | $\beta$ | t (p)         | R <sup>2</sup> | F (p)          |
|------------------------|--------------------|-------|-----|---------|---------------|----------------|----------------|
| Single father (n=113)  | Constant           | 1.56  | .31 | .52     | 5.03 (<.001)  | .37            | 28.57 (<.001)  |
|                        | Depression-anxiety | 0.49  | .08 | -.18    | 6.47 (<.001)  |                |                |
|                        | Family hardiness   | -0.18 | .08 |         | -2.17 (.032)  |                |                |
| Single mother (n=136)  | Constant           | 0.39  | .20 | .81     | 1.92 (.058)   | .58            | 59.93 (<.001)  |
|                        | Depression-anxiety | 0.67  | .05 | -.14    | 12.89 (<.001) |                |                |
|                        | Gender             | -0.14 | .06 | .14     | -2.45 (.016)  |                |                |
|                        | Friend support     | 0.10  | .05 |         | 2.16 (.033)   |                |                |
| Grandparent (s) (n=49) | Constant           | -0.14 | .32 | .83     | -0.44 (.666)  | .58            | 33.61 (<.001)  |
|                        | Depression-anxiety | 0.79  | .10 | .33     | 8.19 (<.001)  |                |                |
|                        | Family support     | 0.22  | .07 |         | 3.30 (.002)   |                |                |
| Both parents (n=382)   | Constant           | 0.86  | .17 | .69     | 5.19 (<.001)  | .48            | 112.40 (<.001) |
|                        | Depression-anxiety | 0.61  | .04 | -.11    | 17.37 (<.001) |                |                |
|                        | Family hardiness   | -0.11 | .04 | .14     | -2.75 (.006)  |                |                |
|                        | Friend support     | 0.10  | .03 |         | 3.29 (.001)   |                |                |

\*Age and family economic status were controlled as covariates.

회귀분석의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자가족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8.57, p<.001$ ), 모형의 설명력은 37.0%였다. 부자가족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불안( $t=6.47, p<.001$ ), 가족강인성( $t=-2.17, p<.001$ )으로 나타났다. 모자가족의 회귀모형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59.93, p<.001$ ), 모형의 설명력은 58.0%였다. 모자가족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불안( $t=12.89, p<.001$ ), 성별( $t=-2.45, p=.016$ ), 친구지지( $t=2.16, p=.033$ )순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의 회귀모형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33.61, p<.001$ ), 모형의 설명력은 58.0%였다. 조손가족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불안( $t=8.19, p<.001$ ), 가족지지( $t=3.30, p=.002$ )로 나타났다. 양부모가족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12.40, p<.001$ ), 모형의 설명력은 48.0%였다. 양부모가족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우울·불안( $t=-2.75, p<.001$ ), 친구지지( $t=3.29, p=.001$ ) 순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하고자 실시되었다. 특히, 생태계학적 접근을 위해 선행 연구를 근거로 개인차원의 우울·불안, 가족차원의 가족강인성, 가족사소통,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지지, 사회차원의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이들이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경제상태는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네 집단 모두 과반수 이상이었으나, '하'라고 응답한 경우는 양부모가족에 비해 부자가족, 모자가족, 조손가족이 많았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부모가족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크므로 이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여러 선행 연구(Cho & Lim, 2009; Oh, 2001)와 일관된 결과이다. Oh는 한부모가족의 경우도 적절한 경제적 지원이 주어지면 양부모가족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기능이 많은 부분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Lee (2000)와 Lee (200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공격성과 범죄는 가족구조의 결손보다는 기능상의 요인이 중요하다고 해석하고,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므로 경제적 지원의 공공정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가족기능 향상을 통한 청소년 자녀의 심리접근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Shin (2005)은 결혼가족과 별거·이혼·사별가족으로 나누어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을 비교한 결과, 단순 비교에서는 차이

가 있었으나 경제적 요인,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폭력요인을 통제했을 때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구조에 따라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경제상태가 다르게 나타나 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여 경제적 차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개인차원, 가족차원, 사회차원의 요인들이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정도는 4점 만점에 조손가족 2.08점, 부자가족 2.05점, 모자가족 1.95점, 양부모가족 1.93점 순으로 부자가족과 조손가족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정도가 모자가족, 양부모가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가족구조를 부자가족, 모자가족, 조손가족, 양부모가족을 나누어 청소년의 공격성을 비교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양부모가족 자녀에 비해 보다 많은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를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들(Jablonska & Lindberg, 2007; Lee, 2007; Park et al., 2006)과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가족구조를 보다 세분화한 본 연구 결과에서 모자가족은 양부모가족보다 공격성 점수가 약간 높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을 비교한 연구(Jeong, 2006; Kierkus & Baer, 2002)와도 일관된 결과로, 한부모가족의 경우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모자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비행 정도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중2와 고2를 대상으로 공격성을 연구한 Cho와 Lim (2009)은 한부모와 양부모의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Cho와 Lim은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가족특성과 사회적 지지를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고 기술하고 이들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한편 양부모가족 청소년과 편부모가족 청소년을 비교한 Lee (2000)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우울·불안, 공격성이 양부모가족자녀보다 오히려 낮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우울·불안에 약한 영향을 미치나 공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Lee). 이는 부모의 이혼 등 가족구조의 해체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훈육방식도 일관적이지 못함을 보고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혼 후 자녀양육이 보다 더 개선되고 부모역할 기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혼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으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줄었지만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자녀와의 친밀성과 자녀에 대한 이해의 영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왔다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Lee, 2009; Shin, 2010). 한부모가족 자녀는 가족 내에서 혼자 남은 부모를 도와야 하는 역할을 재규정하고 동생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부모가족 청소년은 양부모가족 청소년보다 독립심과 책임감이 더 강하고 의사결정의 힘 생긴다고 설명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Lee). 그러나 이들은 부자가족, 모자가족, 조손가족을 모두 포함한 한부모가족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각 가족구조를 세분화하여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통합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부자가족의 경우 우울, 불안의 개인차원과 가족강인성의 가족차원 요인이 주요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두 가지 요인으로 부자가족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을 37.0%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중 우울·불안이 부자가족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부자가족의 경우 가족차원의 특성보다는 개인차원의 심리적 변인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자가족의 경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우울·불안, 성별의 개인차원과 친구지지의 환경차원이 확인되었다. 이들 세 요인으로 모자가족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을 58.0% 설명할 수 있었다. 즉, 모자가족의 경우 부자가족이나 조손가족과는 달리 가족차원보다는 개인차원과 사회차원의 요인이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우울·불안의 심리적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의 공격성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난 많은 선행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나, 본 연구에서 모자가족에서만 성별이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남자자녀가 동일시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는 Min 등(2008)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부자가족과 모자가족 자녀의 성별에 따른 공격성과 관련요인을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조손가족의 경우 주요요인으로 우울·불안의 개인차원과 가족지지의 가족차원이 확인되었다. 이들 두 가지 요인으로 조손가족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을 58.0% 설명할 수 있었다. 조손가족 역시 가족지지의 가족차원보다는 우울·불안의 심리적 변인인 개인차원이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부모가족의 경우 우울·불안의 개인차원과 가족강인성의 가족차원, 친구지지의 사회차원이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세 가지요인으로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을 48.0% 설명할 수 있었다. 결국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구조와 관계없이 심리적 특성인 우울·불안이 네 집단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크기에 있어서는 조손가족, 모자가족, 양부모가족, 부자가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족차원과 환경차원은 그 크기가 개인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가족차원의 가족지지는 조손가족에서, 가족강인성은 부자가족과 양부모가족

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차원인 친구지지는 모자가족과 양부모 가족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Ju와 Cho (2004)는 가족체계의 붕괴가 자녀의 불안정감을 증폭시켜 청소년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청소년의 성장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하였으며,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분노, 외로움, 상실감, 죄책감을 느끼는 등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자가족, 모자가족, 조손가족이 가족구조의 해체과정에서 심리적인 불안정을 가져오고 이들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초기 청소년의 경우 사춘기 시기와 맞물려 가족구조와 관계없이 양부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우울·불안이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이와 가족경제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각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도 개인차원의 우울·불안이 네 가족구조 모두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가족강인성과 가족의사소통, 가족강인성, 가족지지의 가족차원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약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사회차원도 청소년의 공격성에 약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자가족, 모자가족, 조손가족은 양부모가족과는 달리 생계와 자녀양육의 문제를 혼자 떠맡아야하므로 역할과부하에 빠지기 쉽고, 자녀에 대한 감독에 소홀해지기 쉽다. 부자가족의 경우, 특히, 자녀를 돌보는 데 익숙하지 않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Jeong (2006)의 연구 결과와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공격성이 감소하고,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Ha와 Edwards (2004), Kim과 Kim (2007)에 의해 지지된다. 이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및 친구들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지지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독립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우울·불안의 개인차원의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친구지지가 교사지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기가 부모 및 성인들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가 증가되고 또래관계가 확대되는 시기이며 교사와의 세대차이로 인해 성인과 청소년 관계가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친구지지가 교사지지보다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더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 Ha와 Edwards (2004)의 지적과 일관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교사가 친구만큼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지지가 되어 주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 학교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부모, 친구, 교사지지 중 교사지지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Yoo, Lee, & Suh, 2005)와도 일관된 결과이다. 결국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되는 초기 청소년기는 가족구조에 따른 가족기능과 환경차

원의 교사지지, 친구지지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인 우울·불안이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기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 범죄, 문제행동 등과 관련한 공격성을 증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의 심리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며, 더불어 가족구조에 따른 가족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친구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부자가족의 경우는 자녀와의 친밀감형성을 통해 어떠한 위기에서도 가족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가족강인성의 힘을 청소년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모자가족의 경우 남자 자녀가 성역할을 동일시 할 수 있는 대상의 부재가 문제라는 Min 등(2008)의 지적을 감안하여 아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또는 성역할의 동일시 대상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조손가족의 경우는 가족해체로 인한 안타까움으로 허용적인 양육 방식을 선택한다는 Lee (2007)의 지적과 같이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양육방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족의 지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부모가족 또한 부모의 갈등 및 학교생활에서의 갈등 등 개인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측면이 가장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구조와 관계없이 가족기능과 학교기능을 강화하여 초기 청소년의 안정적 정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일부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받고 있는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 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초기 청소년 전반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가족구조의 구체적인 분류는 연구 대상자인 초기 청소년의 설문응답에 의존하여 구분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생태계학적 접근을 위해 개인차원, 가족차원, 사회차원으로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영향요인을 비교함으로써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상담 및 학교와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에 개인상담 뿐 아니라 가족기능적 접근과 학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부자가족, 모자가족, 조손가족, 양부모가족 등 가족해체와 관련된 가족구조자체 보다는 청소년의 우울·불안의 심리적 접근과 가족강인성, 가족지지 등의 가족기능 및 친구지지와 같은 사회차원의 접근이 초기 청소년 공격성 문제에 대한 상담적 개입요소를 검증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결 론

본 연구는 부자가족, 모자가족, 조손가족, 양부모가족의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그 영향요인을 비교하고자 실시

되었다. 특히, 생태계학적 접근을 위해 선행 연구를 근거로 개인차원의 우울·불안, 가족차원의 가족강인성, 가족의사소통,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지지, 사회차원의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이들이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되는 초기 청소년기는 가족기능과 환경차원의 교사지지, 친구지지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인 우울·불안이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기임이 확인되었다. 즉, 가족구조의 해체와 관계없이 양부모가족 또한 부모의 갈등 및 학교생활에서의 갈등 등 개인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변인이 가장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 범죄, 문제행동 등과 관련한 공격성을 증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의 심리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며, 더불어 가족구조에 따른 가족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친구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가족구조에 따라서는 부자가족의 경우 가족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가족강인성의 강화와 모자가족의 경우 부모역할과 성역할을 동일시 할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조손가족의 경우는 보호자의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와 가족지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가족, 모자가족, 조손가족 초기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관련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며, 넷째, 가족구조에 따라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향요인을 근거로 가족구조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 증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REFERENCES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child behavior checklist/ 4- 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N.

Cha, Y. R. (2001). *A study on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Chin, M. J. (2008).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time use. *Family and Culture, 20*(3), 187-211.

Cho, A. M., & Lim, Y. S. (2009). The differences of adolescents' psychologi-

- cal characteristics and status delinquency according to the family structure.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6(1), 137-154.
- Choi, H., Meininger, J. C., & Roberts, R. E. (2006). Ethnic differences in adolescents' mental distress, social stress, and resources. *Adolescence*, 41(162), 263-283.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http://dx.doi.org/10.1207/s15374424jccp1801\\_7](http://dx.doi.org/10.1207/s15374424jccp1801_7)
- Ha, Y. H., & Edwards, C. P. (2004). Causal relationships of adolescent aggression: Empathy, prosocial behavior,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4), 121-132.
- Jablonska, B., & Lindberg, L. (2007). Risk behaviours, victimisation and mental distress among adolescents in different family structur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8), 656-663. <http://dx.doi.org/10.1007/s00127-007-0210-3>
- Jeong, S. H. (2006). Family structure,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adolescent delinquency: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single mother family and single father fami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0, 185-213.
- Ju, S. H., & Cho, S. W. (2004). Impact of conflict and nurturing factors for the divorced parents on the behavioral adaptation of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4), 215-238.
- Kierkus, C. A., & Baer, D. (2002). A social control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delinquent behaviour.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44(4), 425-458.
- Kim, J. C., Seong, G. J., & Choe, W. H. (2010). Effects of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attachment on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9(1), 97-113.
- Kim, J. W., & Kim, H. J. (2007).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aggression, temperament, home environment,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6(2), 85-93.
- Lee, A. J. (2000). A study on the parent-child relat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single parent famil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7(1), 69-93.
- Lee, H. K., & Kim, H. W. (2001).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predicting elementary students' school bullying behaviors: On the bases of their gender and grad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1), 117-138.
- Lee, S. A. (2007). Th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on adolescence's ego and psychological variabl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1), 83-103.
- Lee, S. Y. (2009). A study in the aggression by children and adolescents. *Studies of Behavior Adolescent*, 14, 89-104.
- Lee, Y. A. (1995). A study of perceived family adaptation in patient with chronic renal failure.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4(2), 147-164.
- McCubbin, M. A., McCubbin, H. I., & Thompson, A. I. (1996). Family hardshipness index (FHI). In H. I. McCubbin, A. I. Thompson & M. A. McCubbin (Eds.), *Family assessment: Resiliency, coping and adaptation: Inventories for research and practice* (pp. 239-305).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
- Min, H. Y. (1992). The relation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3(1), 112-124.
- Min, H. Y., Lee, Y. J., & Kim, K. H.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alienation in single mother-headed family and two-parent fami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3), 15-23.
- Oh, K. J., Lee, H. L., Hong, K. Y., & Ha, E. H. (1997). *K-CBCL: Korean children behavior checklist*. Seoul: Chungangjucksung Publication.
- Oh, S. H. (2001). A comparative study on family system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mong male-headed, female-headed, and norm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2, 77-107.
- Park, H. S., Chung, I. J., & Ku, I. H. (2006). Adult-role burdens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2), 303-330.
- Seo, M. J., & Kim, K. Y. (2010). Types of changes in overt aggression and their predictors in early adolescents: Growth mixture modeling.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3), 83-97.
- Shin, H. S. (2005). The influence of family structure variables and family violence variables on hidden delinquency committed by students. *Family and Culture*, 17(2), 63-88.
- Shin, S. H. (2010). Development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children's adaptation in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1), 127-138. <http://dx.doi.org/10.4040/jkan.2010.40.1.127>
- Statistics Korea. (2011). *A report of population and households*. Retrieved January 20, 2012, from [http://kosis.kr/metadata/main.jsp?c\\_id=1962004](http://kosis.kr/metadata/main.jsp?c_id=1962004)
- Yoo, A. J., & Han, M. H. (1996).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1), 173-188.
- Yoo, A. J., Lee, J. S., & Suh, J. H. (2005).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elinquent behaviors depending on family structur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10), 91-102.